

“SRF 갈등 광주시 쓰레기 정책이 원인”

나주시, 광주시 책임전가 주장에 정면 반박
환경국장 개인적 견해 피력은 무책임한 행동

최근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의 책임을 광주시로 전가하고 있다' 식의 광주시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나주시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18일 "지난달 13일 '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 SRF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며 광주쓰레기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2009년 3월 체결한 '폐기물에너지

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한 '폐기물고형연료 전용 발전소'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SRF만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1년 9월 27일 제203회 광주 시의회 본회의 당시 환경생태 국장과 시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쓰레기 처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생태국장의 발언과 관련 최근 광주 시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폐기물 고형연료(RDF) 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는 시의원의 질의에 쓰레기 정책을 전담하는 간부 공무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사견으로 답변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또한 '어떤 경우든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07년 산업부가 허가한 것"이라며 "나주시는 2014년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 허

가를 한 것인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소각하기 위해 허가한 것이 아니다"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했다.

더욱이 "당시 환경부의 수입연료 반대는 2013년이었으나 광주시는 이미 2011년에 광주 SRF를 나주시에 반입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며 "지금에 와서 한탄과 청정빛고을썩간의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청정빛고을의 지분을 25%나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흐리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나주시민의 요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청정빛고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광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담양군과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최근 공공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공공·산업디자인분야 상호발전 담양군-광주디자인진흥원 협약

최형식 담양군수와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최근 공공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위성호 원장은 "도시재생사업 및 디자인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담양군과의 이번 협약식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공분야의 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담양군의 디자인 진흥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자인분야 관련사업 공동 참여, 디자인 진흥정책 및 지역 특화형 디자인 개발 공동 협력, 진흥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최근 공공디자인 및 산업디자인 등 디자인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광역시출연기관으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진 등 디자인 연구개발과 디자인산업 진흥, 디자인 국제 교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디자인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이런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자인분야 관련사업 공동 참여, 디자인 진흥정책

영광-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 맞춘

영광군과 (사)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이 최근 풍력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육·해상 풍력발전소에 대응하는 체계화된 풍력전문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광군이 풍력기 운영·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문채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풍력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양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관내 풍력발전소 재직자 45명을 대상으로 풍력발전 유지보수 직무교육을 12월 1~4일까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실시한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적의 군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유지보수 산업 인력양성, 체험·홍보시설, 연관기업 및 기관 유치 등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단일 면적 국내 최대의 규모 풍력발전기(76기, 174MW)가 가동중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흥군이 최근 2020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흥군 제공

장흥 '지역산업진흥 유공' 산자부 장관상

수소연료전지발전소·체육인재개발원 유치 등 호평

장흥군이 최근 2020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에서 '지역혁신 성장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은 지역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진다.

장흥군은 지난해 9월 전남도에서 추진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해양공원 역사 향기 숲 테마공원 조성사업'

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공원 재생, 복합형 문화공간 및 한반도 사방진 미니어저 테마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연간 40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 효과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유치와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장흥군은 1조2,000억원, 200MW 규모의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대규

모 민자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2월에는 2년여의 준비기간과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7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위해 조성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11월 현재 4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지속가능 지역발전 및 혁신성장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착공

군남·대마면, 120억 투입

영광군은 기초생활 기반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고취를 위해 군남면과 대마면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착공해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총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완료했다. 전남도 및 농림부 승인을 거쳐 지난 10월에 착공 2021년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필요한 다목적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농촌 고령자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생활홈, 주민교육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등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성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촉진 운동

장성군이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 촉진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축산부산물을 주원료로 한 지역 생산 유기질비료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를 독려할 방침이다.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시기에 맞춰 실시되는 이번 운동에는 이장연합회와 농업인 단체연합회, 지역농협 등 장성지역 내

17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현재 장성지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의 면적은 501ha(유기농 251ha, 무농약 250ha)로 전체 경지면적의 6%를 차지한다.

농가들이 소비하는 유기질비료는 연간 75만포 정도를, 지역 제품을 사용하면 관내 업체의 경영난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 장성군에 장학금 전달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최근 1,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장성군에 후원했다.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은 장성 지역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9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전달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후원이 희망을 품고 성장하는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부산면 새마을회, 고추장 나눔행사

장흥군 부산면 새마을회가 최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직접 담근 고추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새마을회 회원과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30여명은 부산면 복지회관에 모여 정성을 들여 고추장을 담근 후,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300여 가구에 1.5kg씩 전달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기아차(광)담양전원주택조합, 1천만원 기탁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기아자동차(광)담양전원주택조합(조합장 김창주)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광)담양전원주택조합은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내 전원주택 189필지를 분양받아 전원주택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세대가 입주를 마쳤거나 착공에

나섰다.

김창주 조합장은 "지난 10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지역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자 조합원들의 뜻을 담아 기탁했다"며 "앞으로 맑은 공기와 숲이 있는 자연 속에서 인심 좋은 주민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담양=정일용 기자